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 참석

- 신유형 광고 도입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개편 적극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월 3일(화) 오후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방송광고 도입과 광고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개편하고,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통해 광고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라며, “광고인이 도전적인 K-콘텐츠 개발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광고인의 화합과 교류를 촉진하고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1.5%가 증가한 1,120편이 출품되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TV영상, 온라인 영상 등 15개 부문, 총 69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TV영상 대상은 단편 부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누군가의 세상이 타고 있다 1탄’ 편이, 시리즈 부문은 KCC건설의 ‘식구의 부활’ 편이 차지하였다.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희수 (02-2110-1270)
		담당자	사무관	김세한 (02-2110-1274)
			주무관	김효나 (02-2110-1272)